

# 대체교재, 그 의의와 한계의 공존

## 젊은 연구자들의 진보성 반영... '연구시각만의 강조'라는 비판도

정태현

수원대 강사·역사학

작년무렵부터 젊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대학 강의용 교재들이 전공분야별로 출판되어 적지 않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학강의용 교재를 향간에서는 흔히 관습적으로 '대체교과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 명칭이 그다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존의 다른 '교과서'류를 대신하여 대학에서 강의 교재나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대체교과서'라는 용어는 이러한 움직임의 일단을 뚜렷하게 드러내주기도 한다.

'대체교과서'의 활성화는 우선 한국사분야에서 비롯되었는데 1989년 '한국역사학회'에서 「한국사강의」(한울)를 출간하였고(이 책은 참고문헌 목록을 추가하여 1990년에 증보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1990년 2월에는 '구로역사연구소'에서 「바로 보는 우리 역사」(거름)라는 교재겸 대중용 역사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치학 분야에서는 '한국정치연구회'에서 "민족의 정치현실에 성실하게 답변할 임무를 갖고 민족의 정치적 전망을 정확하게 추구하는 정향"을 세우고 '민족정치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정치학강좌 시리즈로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 「한국정치사」 「한국정치론」 「북한정치론」(백산서당) 등 모두 4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에서도 미국의 사회학 이론을 그대로 옮겨놓다시피하던 기존의 사회학개설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학강의」(미래사)를 출간하였다. 이외에도 「사회과학개론」, 1,2(백산서당)과 사회과학 출판물 대중화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철학에세이」(동녘) 「한국민중사」, 1,2(풀빛) 등은 서점가에서 스테디셀러로서의 위치를 굳히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대체교과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연구진영에서는 위에서 예를 든 분야 이외에도 전분야에 걸쳐 '대체교과서'의 출간을 서두르고 있으며 서양사나 동양사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이고 '한국사회연론연구회'에서는 일종의 매스컴학 개론서로서 대학 초급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컴과 현대사회」를 집필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체교과서' 출간의 활성화는 모두 80년대 들어 연구자들이 흔히 빠져 들어가

쉬운 개인 성과물 중심의 소시민적 속성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연구를 모색하고 상아탑이란 허구에서 탈피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일환으로서 연구작업의 위상을 세우려고 노력하던 젊은 연구자들 중심의 학술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다. 그런 만큼 이러한 학술단체의 구성원인 일군의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전개된 '대체교과서'라는 새로운 출판물의 활성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회적 의의를 크게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대체교과서' 출간 주체의 집단화

보통 교과서라고 할 때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분량에 그때까지 쌓여진 연구업적을 총괄하여 서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만큼 연구역량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갓 정치적 팸플릿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연구업적이 쌓일 때까지의 절대적인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연구작업에 요하는 절대적인 시간의 소요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연구자들이 연구시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이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연구축적의 성과는 언제부터 그 경계를 갖게 되는 것일까? 연구자들 사이에서 기존의 학문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유신시기부터 배태되고 있었지만 대체로 80년의 '대변동' 이후부터라는 지적이 일반적이고, 유신 후반기에 대학을 다녔던 필자 스스로의 작은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연구자들이나 학술부문의 독자적인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이 80년을 계기로 운동노선이나 방법론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것이다. 학문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은 사회운동의 전개가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큰 범주안에 수용됨에 따라 학문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부문운동으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움직임은 먼저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이제까지 미국 등 서구나 일본에서 유행하던 연구방법론을 무조건 우월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를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것만으로도

### 기존학계의 학문패러다임에

###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일련의

### '대체교과서'들은 80년대 들어

### 질적 비약을 겪은 우리사회의

### 발전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 일정한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업적의 축적이

###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연구시각만의

### 강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학자'가 할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자처하던 식민지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미국 등 서구나 일본의 연구방법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시각을 깔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때늦은 감마저 많다고 할 수 있는 학문의 자주성을 자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인식은 당연한 일이지만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연구자들이 단번에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었다. 80년대 초반까만 해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색되던 것이 일정하게 양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까지의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진보적인 시각의 집합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색의 출발은 1984년 '한국산업사회연구회'라는 연구단체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단체는 처음에는 초기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학은 물론 정치학, 경제학 등 소위 사회과학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든 분야의 전공자들을 집대성하여 출발하였으나 점차 진보적인 연구자들의 발전적 분화를 거듭하면서 '한국정치연구회' '사회경제학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회' '한국공간환경연구회' '보건의사회연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사회연론연구회' '한국교육문제연구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한국사분야도 1984년에 이미 '망원한국사연구회'의 발족을 보게 되었고 이 역시 발전적 분화를 거쳐 '한국역사연구회' '구로역사연구소'가 발족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이제까지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접해야 하는 역사

연구가 연구자들의 '상아탑 환상'에 의해 차단된 것을 반성하고 '역사연구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1986년에 '역사문제연구소'가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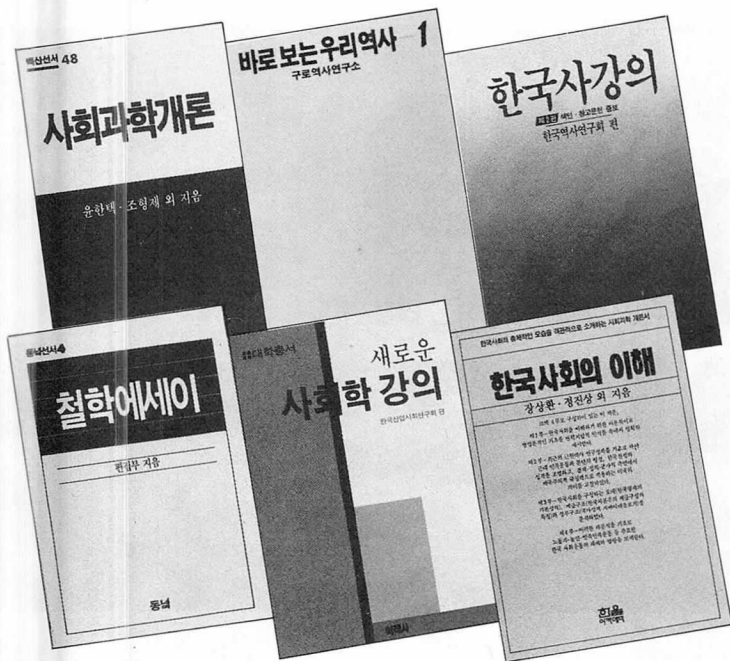
이처럼 소위 대학의 학문분류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의 모든 전공단위를 중심으로 한 연구단체들이 흩어져 있던 연구자들의 진보적 역량을 모으는데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전공단위의 편협성을 벗어나 과학의 총체성에 입각하여 명실상부하게 사회운동의 전개에서 부문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1988년에는 '학술단체협의회'의 발족을 보기에 이르렀고 전공단위별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이미 두차례의 심포지엄을 개최, 저간의 과정에서 축적된 적지 않은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 '대체교과서' 출간의 사회사적 배경

'대체교과서' 집필의 주체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8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그리고 이를 연구분야에서 체화시키려고 노력하던 진보적인 일군의 소장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이 연구자로 성장하면서 대학의 강사로 나서게 되었을 때 부딪혔던 모순의 하나가 자신들이 고민하고 연구라는 틀 속에 담기 위해 노력하던 의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교재의 번역사성과 부실성이었다.

창피한 얘기이지만, 서울의 한 두 대학의 한국사개설서를 제외하면 한국통사의 경우 필자 스스로도 한국통사강의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교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어느 한국사개설서는 그 책의 필자 자신이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철저하게 지배계급 중심으로만 서술되어 있고 원시시대를 포함하여 고중세사 연구시각도 어느 일방의 시각만(문제가 많은 것이겠지만 이 책에 대해 혹평하는 사람들은 일본학자들의 기본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조차 한다) 고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근현대사부분은 냉전적 분단논식에 기초한 관변이데올로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을 뿐이어서 진보적인 연구자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참고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이 강의의 두 주체자 가운데 하나인 강의담당자의 고민이었다면 또 다른 주제인 수강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교재는



이즈음 대학강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체교재'들.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 집필한 이들 책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우리사회를 분석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에게 커다란 모순으로 다가왔다. 젊은 세대의 사회인식은 당연히 기성세대와는 달리 진보적이고 전향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으며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흔히 젊은 학생들이 추구하는 전향적이거나 진보적 의식을 일부 논자들은 '세대차'라는 용어로 가볍게 일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세대차라도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80년대 이후의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하여 이미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던 사회운동 전반의 분위기에 맞추어 엄청나게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롭게 자기변신을 해야 마땅한 대학강단에서 취급하고 있던 기존의 강의교재는 역사적·시대적 변화를 전혀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내용일 뿐 아니라 심지어 반자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을 여전히 고집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새로운 강좌 개설과 강사 선정을 둘러싸고 학교당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도 대학의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냉정

하게 바라보면 강사를 포함하여 기존의 교수들이 그만큼 자기 연구분야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항상 새롭게 개신하려는 노력을 기울리려는 현실안주에 빠져버렸고 의식, 무의식 중에 보수화된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아 물론 '대체교과서'의 출간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필연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체교과서'가 나오게 되기까지 전술한 대로 80년을 경계로 하면 거의 10여년의 시간을 소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설서류의 '대체교과서' 외에 국부적인 분야에서는 이미 소장연구자들의 연구가 축적되어 공표되기도 하였다. 한국사의 예를 들면 '망원한국사연구실'의 「한국근대민중운동사」(돌베개)나 '역사문제연구소'와 '한국역사연구회' 공동의 「3·1민중해방운동연구」 등이 있고, 정치학이나 사회학, 경제학의 경우에는 「해방전 후사의 인식」 1-6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개설서류를 중심으로 한 '대체교과서'의 활발한 출간 움직임에 대해 일부 논자들은 연구역량이나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시각만을 강조한, 다시 말하면 목소리만 높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일부 타당하고 관계연구자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대부분은 자기의 연구시각만을 고집하거나 냉전적인 관변의 입장에 서서 그와 다른 연구 시각에 대해 축적된 실증적 연구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외시하거나 작위적으로 '위협시' 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구역량의 축적부족이라는 점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상황에서 연구역량을 수십년 쌓아온 기존의 연구자들이 하지 않거나 무시했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어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연구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실의 실천적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전제로 하여 서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문의 자기완결성이라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인식에 제한받으면서 다음 세대에 이르면 다시 냉정한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기존의 교과서류들은 과연 충분하게 쌓인 연구업적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재론하면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힘든 실정이다. 미국식 패러다임을 거의 번역하다시피하여 그대로 옮겨 놓은 채 그것만이 올바른 학문의 '고전'임을 강요하는 예가 그렇고 한국사의 경우를 들더라도 기존의 유명한(?) 몇몇 통사류를 보면 전술한 바대로 고중세사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이 그러하거나 근현대사부분은 새롭게 제시되는 연구결과를 전혀 참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4,50년대의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낡은 인식을 거의 여과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대체교과서' 출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적 역량상 필자가 관계하고 있는 한국사분야의 '대체교과서'류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사분야에서는 「한국민중사」까지 포함시키면 3종류의 대체용 개설서가 나와 있다. 「한국민중사」의 경우는 84년이라는 80년대의 초기적 성격 때문에 아직 진보적 연구자들이 자기 입장을

세우기 전의 연구성과로서 오늘의 시점에서 벌써 과거의 산물이 되어가는 듯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 나온 「바로 보는 우리역사」와 「한국사강의」를 그 중심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는 일반 대중용 한국사개설서의 성격을 띠고 동시에 대학 강의용교재라는 점에서 후자와는 일정하게 차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책 모두 과학적 역사연구가 담아야 할 사회구성체적 성격의 차원에서의 역사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오늘의 사회가 어떠한 과거를 통하여 필연적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오늘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사회로 이전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책 모두 민중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개설서류와는 달리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는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민투쟁사관' 또는 수동적으로 저항만 하는 민중의 상이 부각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의 연구성과가 그러하다는 이유로 변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한된 연구성과를 충분한 문제의식과 집필주체로서의 집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소화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은 비단 한국사 분야의 연구성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결과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본다. 이것은 냉정하게 볼 때 '대중화' 또는 연구를 통해 사회운동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일정하게 훼손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속류화시킨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의 척박한 연구풍토가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당하고 진지한 고민속에서 다시 소화시켜 내는 것만이 건설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대체교과서' 출현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그것의 역사성과 시대적 의의를 강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현실화되어 있는 '대체교과서'물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의의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기로 한다. 아직 너무나도不適한 점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